

공동선언리행에 북남관계개선의 길이 있다

지금 남조선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유연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개선》을 광고하고있다. 문제는 북남관계의 개선이 표를 의식한 《보라빛공약》이나 막연한 웨침으로 되는것이 아니라라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면 북남공동선언리행의사가 중요하다.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북남관계의 발전,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도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평가와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지체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밝혀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이 다 밝혀져있다. 이 역사적인 선언들에 의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는 일대 전환적

면이 열리게 되었으며 민족적화합과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북남공동선언들이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리념, 민족적단합의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에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기 위한 단합의 의지,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피줄, 하나의 민족으로서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단결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근본핵으로 하고있는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반세기이상이나 끊어졌던 민족의 혈연적유대를 다시 잇고 온 겨레를 자주통일실현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실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였으며 북남공동선언들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었다.

그런데 북남공동선언들을 처음부터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어오던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집권하기가 바쁘게 그들 《용공리정문서》, 《부도날수밖에 없는 약속어음》으로 악랄하게 비방하고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6.15의 성과들을 모두 말살했다. 동족에 대한 《주적》 나팔을 풍풍연히 불어대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흡수통일》이라는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북남관계를 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극도의 대결상태에 몰아넣었다.

모략적인 《천안》 호사건과 도발적인 연평도사건을 기화로 북남관계를 총포란이 오가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몰아갔다. 저들의 반통일적 《대북정책》이 총파산에 이른 오늘날에 와서도 리명박대통령은 어중이떠중이인 간스레기들을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내몰며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가고있다.

6.15의 화해와 함께 북남사이에서 이어졌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끊어지고 전쟁위협만이 짙게 떠도는 오늘의 참혹한 사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해나선 남조선보수세력의 반통일적대결정책이 초래한 참담한 비극이고 후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잘못된 《대북정책》에 대해 사죄하고 이제라도 공동선언리행의사를 밝혀야 하겠으나 구태의연한 대결책동에만 매달리고있다.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북남관계를 개선할것처럼 《공약》을 늘어놓으면

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북남공동선언리행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있는것도 그 한 실례이다. 온 겨레와 세계앞에서 북남수뇌분들이 확약한 공동선언을 외면하면서 도대체 무슨 《약속》을 지킨다는것이냐 《정상회담》을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 하는것이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북남공동선언들이 밝힌 경의에 다른 길이란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말아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기치, 통일리정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바로 여기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실현해나가는 길이 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거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장남철



《12.19 평화를 선택하라!》

(발설대상)으로 규정하고 남북간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중단시켜놓음으로써 극단적인 대결과 적대감만을 강요하였다. 북과의 화해, 협력을 추구하고 평화와 통일을 요구했던 세력들에게 (총북)의 락인을 찍고 (군의 직

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을 험박하고 민주적리리를 훼손한 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보수수구세력을 엄중히 심판하고 평화와 통일, 자주와 협력의 새로운 정책을 강제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리명박 (정권) 이 언제라도 득세하여 (한) 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의 전망을 훼손하게 될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재집권시도를 분쇄할것을 촉구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반드시 자주, 평화, 통일의 시대적과업을 진전시킬수 있는 (대통령), 남북공동선

한 과제이며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보수수구세력을 엄중히 심판하고 평화와 통일, 자주와 협력의 새로운 정책을 강제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리명박 (정권) 이 언제라도 득세하여 (한) 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의 전망을 훼손하게 될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재집권시도를 분쇄할것을 촉구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반드시 자주, 평화, 통일의 시대적과업을 진전시킬수 있는 (대통령), 남북공동선

언들을 성실히 리행, 남북대화과 협력을 부민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통령), 군사대결정책을 폐기하고 미군없는 평화협정체결에 힘을 쏟아 (한) 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도모하는 (대통령),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백지화하고 폐전적 (한) 미일동맹해체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 무기증강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는 (대통령), 불순한 (북풍) 안보공세를 거부하고 (보안법)을 폐지시킬수 있는 (대통령), 진정한 (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 교체실현하여 겨레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자!》고 호소했다.

본사기자

자주통일의 길로 함치게 나가자!

《통일의 메아리》 방송이 곧 시작되게 됩니다

조국통일과 민족적화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대변하는 무소속 민간방송인 《통일의 메아리》가 곧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조선의 진보련대를 비롯한 30여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17일 서울청계광장에서 《평화통일대통령》을 선출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호소하는 《12.19평화를 선택하라!》 집회를 가졌다. 집회참가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력대 그 어느 독재 (정권) 에도 뒤지지 않는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정권) 의 임기가 끝나고있다. 리명박 (정권) 집권 5년간 (한) 반도의 평화와 통일,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실현 등의 요구들은 처참히 파괴되었다.》고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리명박 (정권) 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상대방을 (적),



이남사람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자기들의 생존, 민족의 사활문제로 보고 지긋지긋한 그 5년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5년간에 북남관계에서 실제로 엄청난것을 잃었다. 리명박 《정부》는 남북교

이남사람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자기들의 생존, 민족의 사활문제로 보고 지긋지긋한 그 5년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5년간에 북남관계에서 실제로 엄청난것을 잃었다. 리명박 《정부》는 남북교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미국과 야합하여 북을 겨냥한 전쟁대결소동을 벌리면서 항시적으로 조선반도에 초긴장을 몰아왔다.

그 결과 북남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가관인것은 리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것이 엉망진창되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등장한 리명박 《정부》 치하에서 재벌들이 웃는 동안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곤궁에 빠져들었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고간을 채우는 경제정책의 결과인것이냐. 《총북》바람으로 이남

의 《주권》은 빛갈조차 볼수 없다. 이렇게 망해가는데 《대통령》측근과 친인척들, 《새누리당》은 하루가 멀다하게 부정부패사건을 터뜨리고있다. 정말 부정부패를 일삼는것이 《정권》의 목표라도 되는듯 하다.

이제 다시 이 모든것이 되풀이 된다 상상해보라. 몸서리친다. 해외에 사는 우리도 지난 5년간을 가슴 옥죄이며 살았는데 이남사람들이야 오죽했으랴.

출로는 있다. 북남관계, 북남협력 풀리면 조선반도평화, 이남경제도 풀린다. 이를 위해 이를 말아먹는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

재증동도 리명자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류만 막으면 임기내 북이 《붕괴》할것이라는 허황한 《북붕괴론》에 빠져 집권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사이 화해, 협력문제는 이남사람들은 물론 통일을 오매불망 바라는 우리 민족의 관심사로 되고있다. 더우기 남조선의 현 《정권》 하에서 악몽의 5년을 보낸

북보다 남측이 더 큰 경제적피해를 입은것이다. 세면이 바다로 떠돌아있고 북쪽으로는 저들이 쌓은 콩리트장벽으로 막혀 그야말로 《섬》의 처지인 이남이 지척인 북을 외면하고 그 무슨 지속적경제성장을 운운한단 말인가.

북남관계파란에 이어 모든

친지는 《유신》독재때보다 더한 대결컬바람이 장장 5년간을 휘몰아쳤다.

일본의 력사외국, 독도침략에 항의하기는커녕 일본왕에게 《천황》이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미국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어머머머머를 안겨주며 《정권안보》를 구걸하는 모습에서 이남

출로는 있다. 북남관계, 북남협력 풀리면 조선반도평화, 이남경제도 풀린다. 이를 위해 이를 말아먹는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

재증동도 리명자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리명박 《정권》의 5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은 남조선에서 파초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민주와 인권, 민생이 무참히 짓밟혀온 암흑의 5년인 동시에 북남관계에서도 대결과 파국이 일상사로 되어온 《잃어버린 5년》이었다.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이라는것을 자기의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온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6.15와 함께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모든것을 송두리채 뒤집어엎었다.

리명박대당은 집권초기부터 《북에 끌려다니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 《남북대화를 5년간 안해도 좋다.》, 《임기말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에 둘까 오가 되어있다.》고 하면서 대화를 전면거부하였으며 대화를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을 악랄하게 우롱, 모독하였다.

보수당당은 대화에 마지못해 끌려나와서는 극히 부성의하고 오만불손하게 놀아대면서 대화마당을 대결의 마당으로 몰아가결국은 모두 결렬시켜버렸다.

남조선 현 《정부》는 모략적인 함선침투사건을 계기로 만들었던 《5.24조치》를 내놓고 민간접촉과 교류를 전면불허하였다. 하여 각계층의 북남대담이 끊기고 민간단체들이 접촉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6.15통일행사를 비롯한 공동행사들도 북과 남이 따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대결광신자들은 《협력이나 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생각지 말라.》느니 하면서 열도당도 않은 《대북사업 4원칙》이라는것을 내놓고 북남경제협력사업에 빗장을 걸었다. 보수당당의 대결책동에 의해 화해와 협력사업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하루아침에 중단되고 북남경제협력사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남조선선업들이 파산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보수당당은 지어 흘려진 가족, 친척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사업마저도 저들의 불순한 체제대결목적에 악용하는 반인륜범죄행위까지 감행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펼칠만큼도 바라지 않는 남조선 현 보수당국의 이러한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온 늘 북남관계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보지 못한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오늘의 북남관계파국의 원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정책에 있다. 그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

언을 전면부정하면서 날날이 드려갔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반세기이상 지속된 분렬의 력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상봉하여 채택한 새 세기 조국통일의 대강이고 리정표이다. 북남공동선언이 있음으로 하여 반세기이상이나 동족끼리 서로 불신하고 대결하던 불행의 력사에 종지부가 찍히고 북과 남이 진정으로 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 나아가는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보수당당은 《6.15 통일은 없다.》고 뇌까리며 북남공동선언을 《용공리정문서》라고 헐뜯고 《이전 (정권) 이 북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무효이며 리행할 무가 없다.》고 도전해나갔다. 북남공동선언들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리념에 대해서도 《편협한 민족주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라고 모독하고 《그것은 남북관계를 해결할수 없다.》는 망발까지 거리낌없이 늘어놓는것이 바로 리명박대당이다. 뿐만아니라 북남공동선언들이 명시된 내용들을 하나도 리행하지 않았으며 6.15시대에 이룩된 성과들을 모조리 파괴해버렸다.

그것도 부족하여 공동선언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을 탄압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수포한 전직 《대통령》들까지 박해하여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부정, 유린은 북남관계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겨레의 통일념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다.

리명박 《정권》의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은 《체제통일》, 《흡수통일》을 추구한데서도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위한 기초이고 일제기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에서도 북과 남이 확약한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북남관계에서는 대결과 충돌, 전쟁밖에 초래될것 이 없다는것은 분렬의 오랜 력사가 잘 말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집권 첫시작부터 동족을 반대하는 체제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해왔다.

리명박은 2008년 2월 권력을 취하자마자 극히 불순한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선포하였으며 그해 11월 미국상선을 찾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하는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하면서 세계대전에서 체제대결을 공공연히 선포하였 다. 보수당당은 집권기간 그 무신 《금번사태》를 가상한 《비상통치계획-부흥》, 《통일대계탐색연구》 보고서와 같은 대결각본들을 편이어서 조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체제대결정책을 여론화할 목적으로 《통일세》라는것을 들고나왔다.

2010년 《8.15경축사》라는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에 기초한 《3단계통일방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온 리명박은 2011년 6월에는 《통일도 적처럼 한방중에 울수 있다》는 작교대같은 소리를 하며 《체제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대결을 극도로 고취하였다.

리명박대당은 인간스레기들을 내몰아 베라살포와 《대북방송》을 비롯한 심리모략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으며 정치적생명이 끝나가는 오늘까지도 《북인권법》이니, 《통일항아리》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반북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대결을 대결을 놓고 또다들 총들과 전쟁을 불로오기마련이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집권전기간 벌려온 악랄한 동족대결책동에 걸이안이 되고있는것은 그것을

전의 대결시대로 되돌아가고 서해는 전쟁의 바다로 화하였으며 언젠가 땅에서 전면전쟁이 터질지 알수 없는 초긴장상태가 계속되게 되었다.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대결의 뼈아픈 상처를 주고 북남관계를 몇십년 후퇴시킨 이 불행의 5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남조선의 민심이고 온 겨레의 강력한 요구이다.

《선거》를 앞둔 오늘의 남조선에서 《해신》과 《통합》, 《북지》를 목이 터지게 웨쳐대고있는 《새누리당》은 바로 리명박과 함께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온 대결의 주범이다.

반통일대결 《정권》을 놓고 극도의 폐쇄적이고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쌍수를 들어 연영하면서 시종 북남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워온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꾸어달았다고 해서 대결과 독재의 대결이 달라진것이 아니다. 변할수 없는것이 《새누리당》의 반통일대결본성이다.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NLL문제》라는것을 물고늘어지면서 동족대결의 광신적인 《북풍》소동에 또다시 혈안이 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내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이라는것도 북남관계를 단숨에 파산시킨 리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이고 반북 《인권》모략소동의 계속이며 어리석은 《체제통일》망상의 확대판이다. 《새누리당》후보이자 리명박이고 독재여당의 재집권이 《유신》의 부활, 리명박대결 《정권》의 연장으로 된다는것은 이 땅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은 남조선인민들뿐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있어서 커다란 재앙으로 될뿐이다. 리정파상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새누리당》의 기만정책에 속아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다시는 2007년 《대선》때 리명박을 선택한것과같은 쓰디쓴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이 오늘도 바라는것은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이며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부르고 민족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대결의 악순환은 이제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김철민

18대 《대선》을 앞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보수집권세력의 무모한 동족대결정책을 반대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대중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과 진보연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30여개 통일운동단체들은 범민련 남측본부결성 22돌기념식과 《평화통일대통령선출집회》를 열고 리명박보수집단이 저지른 온갖 반동일적악을 단죄공탄하면서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형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에 앞서 남조선의 사회각계 인사들과 인민들은 10.4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서울과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에서 리명박 《정부》가 공동선언의 임무를 마르기도 전에 평화와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파괴하였다고 폭로하면서 지난 5년은 《참으로 비통한 계절》, 《민족대결의 5년》, 《불통과 불안의 3불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보개혁세력의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선언에 기초한 《대북정책》 방향들을 제시하는 특별대단을 조직함으로써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늘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의 동족대결정책을 반대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는것은 민심의 요구이며 대세의 흐름이다.

민심의 흐름과 요구

사실 리명박 《정권》의 집권기간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와 야합한 남측의 북남대결정책과 북집권정책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공포분위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았던 안되었다.

거의 매일이다싶이 벌어진 《을지 포커스 렌즈》, 《독수리》와 같은 대규모북침합동군사연습과 공화국을 핏물고 자극하는 도발적인 언동, 극단한 《안보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꾸며낸 《천안》호사건과 연평도도발 등 대결행위들은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란시켰으며 그 결과 조 심산반도에는 사시정철 일축적발의 침에 한 전운만이 서러

있게 되었다.

리명박집권 5년간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한번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속에서 일하고 생활해보지 못하였으며 국토의 불안과 공포속에 날과 달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화국을 겨냥한 남조선호전세력의 포사자후도발로 비롯된 연평도사건 이후 섬주민의 98%가 빠져나가고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주민속에서 이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군에 간간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일대 소동들이 일어났것은 그 단적인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다.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시키고 일체의 교류와 협력, 래왕을 중지시킨 《5.24조치》로 하여 북남경제협력에 종사하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되고 북남화해협력사업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중단되어 관계자들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였으며 남강원도를 비롯한 지역경제가 몰락되게 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금강산관광중단으로 관광기업들과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수십억US\$나 된다고 한다.

리명박 《정권》의 북남대결정책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과 존엄도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 22돌 기념식. 일시_2012년 11월 17일(토) 오후3시 장소_기독교회관 2층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갈수록 자기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어느 한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북핵문제해결은 동북아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느니, 북이 그 누구의 손을 받아 《새로운 신뢰의 다리를 건설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그릇된 선택은 엄청난 고통을 초래할뿐》이라느니 뉘니 하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그는 《국제적경험이 있는 북의 새로운 리더십도 전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에 발맞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제넘은 훈시질도 하였다.

그가 과연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우선 그는 그 누구의 《핵문제》에 대해 운운하기 전에 핵문제의 발생경위와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공부나 하고 입을 놀려야 한다.

핵문제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에 의해 산생된 문제이며 비핵화는 조선반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런 초보적인 상식조차 모르는 그가 북의 현실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 누구의 《변화》니, 《선택》이니 하는 어리석은 발언을 하는것인가.

변화해야 할것은 바로 남조선이며 중대한 선택의 기회를 맞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민심의 배격과 온 겨레의 규탄을 받고 파멸에 직면한 보수세력과 그와 한축속인 그 자신이다. 더우기 현 보수당국의 반공화국모

구대이연학 대결이전

락과 대결소동, 전쟁책동에 대해 적극 맞장구를 치며 공범자로 나서고있는 그가 그 무슨 《평화》와 《안보》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지난 기간 그는 조선반도의 정치현실을 리해할 능력이 없다보니 입에서 무엇이 나가느니도 모르고 실쳐왔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섬》이라느니,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느니 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지어 《5.16구태와 《유신》독재가 《북의 남침위협》을 막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다.

그의 언행을 보면 그는 《대통령》 후보의 자질은 고사하고 혈관속에 피가 흐르지 않는 《얼음공주》가 분명하다.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둔 오늘날 그가 이렇게 동족에 대한 날조와 비방중상에 매달리고있는데는 이른바 《준비된 지도자》라는 인식을 내외에 주어 제 몸값을 올려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상전의 환심을 사는 한편 남조선극우보수세력을 자기 주위에 더욱더 규합하고 보수적인 재외표심까지 끌어당겨보려는데 그의 비렬한 속심이 있다.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어론을 조성하여 반공화국국제적압박공조를 형성해 보려는 그와 《새누리당》 패거리들의 대결소동은 지금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아베 신조 극우공약과 《새누리당》 후보

아래의 글은 남조선의 인터넷매체인 《동북아의문》에 실린 글이다.

《차기 일본총리 유력자인 아베 신조 자민당총재가 21일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주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계시마의 날》을 정부행사로 승격, 일본군위안부 정당성 홍보강화, 전쟁허용, 군대보유 내용이 들어가도록 평화헌법수정안 제출, 집단적자위권행사 추진, 교과과사검정제도 수정으로 우익 교과서 활성화시도.

한마디로 극우군국주의부활을 공식화한것으로 볼수 있다.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에 날개를 달아주는게 바로 《한》 일군사협정이다.

리명박 《정부》가 몰래 추진하던 《한》 일군사협정을 우리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중단시켰다.

그런데 박근혜후보는 이를 단순히 절차적문제로 치부하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리명박 《정권》의 반동일정책과 그를 적극 비호동조한 《새누리당》을 반대하여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라 본다.

현시기 시대와 남조선민심의 흐름과 요구는 한결 같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형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 교류를 실현하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본사기자 명금룡

학원투쟁과 학생 《인파연학》?

남조선보수당국이 14일부터 16일까지 제1차 《서울안보대회》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 누구의 《핵과 미싸일위협》이니, 《국제사회의 협력》이니 하며 미국과 나토 등에 매달려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압박공조를 구걸하는 놀음을 벌려왔다.

이것은 동족을 끝까지 적대시하는 대결광의 더러운 추태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악랄한 도적이 아닐수 없다.

원래 리명박보수당국이 《안보대회》니 뉘니 하는것부터가 어불성설이고 주제넘은것이다.

리명박이 집권해서부터 오늘까지 공화국을 《주적》으로 삼고 무분별한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려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올해만 해도 남조선호전광들은 정초부터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일대에서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을 벌려놓는것부터 시작하여 거의 매일이다싶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몰두해왔다.

2월에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3월에는 최대규모의 해병대연습인 《쌍룡》 훈련이,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10월에는 《호국》 훈련이 진행되것을 비롯하여 미국과 야합하여 벌린 대규모북침전쟁연습들이 온 한 해 실재없이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온 남조선민심이 통째로 옹근 하나의 전쟁연습장으로 화하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축적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곤 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도 남조선호전광들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전연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북의 대선개입》과 《군사적도발가능성》을 떠들다 못해 《보복》이니, 《응징》이니 하는마귀의 폭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화해와 평화를 바라지 않는 남조선보수당국이라는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어울리지 않는 《안보대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안보》타령을 잔뜩 늘어놓는것은 까마귀가 백로흉내를 내는것만치나 괴이한것이다.

에당중 리명박 《정권》은 평화를 운운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집단이다. 그런 호전집단이 《안보대회》를 개최한다 어쩐다 하면서 분주랴를 퍼운데는 다른데 목적이 있다.

《북의 핵과 미싸일위협》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구실로 국제적인 《대북압박공조》를 실현하여 《흡수통일》의 더러운 야망을 실현해보자는것이 리명박보수당국의 진핵수심일것이다. 그들은 《북의 위협설》을 요란히 내들려 남조선에 《안보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의 열망을 차단하고 12월의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에 힘을 실어주려는 비렬한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에서 하루빨리 전쟁위험을 제거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은 그 누구도 거스를수 없다.

리명박보수당국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발할수록 자기 파멸의 구렁렁이만 깊어간다는것을 명심하고 비렬한 흉심을 버려야 할것이다.

박철남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죄행을 단죄

제스웨리에동포가 얼마전 사대매국적인 남조선역적패당의 반민족적죄행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새누리당》이 외세를 반대,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더우기 수십년째 당명칭을 바꾸며 오늘까지 존재해온 《새누리당》이 반역정당의

로써 해체될 대신 또다시 권력을 잡으려 하고있다고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노예문서인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을 폐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시킴으로써 민족의 평화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정치적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초불투쟁 전개

남조선의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투표권보장 전국민행동이 17일 서울시청 앞광장에서 정치적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초불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선거》 때 투표시간을 연장할때 대한 시위 15만명의 뜻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하였지만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선거》날을 휴식일로 정하고 누구나 투표에 참가할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그러나 남조선집권세력은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수 없다고 생떼를 쓰면서 공화국의 당국적중재에 대해 이리저리 비틀었으며 2010년 2월 접촉에 나와서도 무례하게 돌아다니다 끝내 회담을 결렬시켰다.

그뿐아니라 아태와 한태를 비롯한 금강산관광사업당사자들끼리의 접촉까지도 가로막아나서다 못해 관광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 핵문제와 《천안》호사건, 연평도 포격사건까지 꺼들며 무분한 전제조건들을 내들어 금강산관광이 오늘까지도 끝내 재개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금강산관광이 4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못한 현실적과정은 바로 이리하다.

사실이 이리함에도 지금에 와서 리명박보수당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저들의 죄과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사실전도의 허튼 나발을 마구 불어대고 있으니 참으로 비렬하고 철면피하기 그지없다.

현대그룹과 협력사업을 계속하며 남조선인민들에게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마음껏 보여보게 하려는 공화국의 동포에적립장은 어찌나 오늘이나 변함없다.

이제 금강산관광길이 다시 열리게가 마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배영일

금강산관광길은 누가 막고있는가

최근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때로부터 14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그 재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남강원도 고성에서는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의 주최하여 금강산관광재개를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다.

여기에는 남조선의 각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기업협회 등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과 정 《대통령》 김대중의 부인 등적지 않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남조선보수당국의 관광중단정책을 규탄하고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7월에는 리명

박당국에 의해 금강산관광이 중지된지 4년이 되는 날을 맞으며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관광재개를 바라고 75%가 금강산관광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북남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라고 대답해 금강산관광재개를 바라는 민심의 열망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었다.

지금 남조선의 절대다수 언론들은 김대중, 로무현 《정권》이 10년동안 어렵게 구축한 금강산관광로대를 리명박당국이 몽땅 말아먹었다고 하면서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지 공화국에 관광재개를 위한 회담을 먼저 제

기하고 관광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에 나선 각 후보들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약하고있어 이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알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리명박보수당국과 《새누리당》만이 이니, 《남북합의위반》이니, 《신변담보조치》이니, 《기업권리, 재산권침해》이니 하면서 금강산관광중단과 관광재개파탄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려고 비렬하게 행동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관광재개가 오늘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전적으로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비렬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있다.

사실 공화국은 남조선인민들에게 관광길을 열어주기 위해 기울일수 있는 정정과정의, 할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였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은 세계적명산인 금강산을 보고싶어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심정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 그리고 남조선 현대그룹의 요청을 공화국

이 받아들여 1998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나라가 분열된지 53년이 지나 남북동포들의 금강산관광길을 열어주는게 큰제는 커다란 기쁨과 감동에 휩싸였으며 전세계도 이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 발표된 후 금강산관광은 급격히 확대발전하였으며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근 10년간 금강산을 다녀간 남조선관광객수는 무려 192만명이 넘었다. 그속에 남조선의 현 여야 《국회》의 원들은 물론 청와대와 행정부의 장, 차관을 비롯한 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 인민들

《 국민대통합 》인가, 국민분렬인가

남조선에서 《대선》이 눈앞으로 박두하고있는 속에 《새누리당》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이 실천가능성이 없는 《쪽정(쪽정공약)》, 《무늬만 찬란한 보라빛공약》들이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가 주요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3대공약》중의 하나인 《국민대통합》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여론의 초점이 모아지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국민대통합》을 이룬다고 하면서 진보와 중도층 끌어들이기에 열을 올리다가 보수세력으로부터 《산토끼(진보와 중도층)는커녕 집토끼(보수층)도 놓치고말았다》는 비난과 불만이 쏟아져나오자 다시 보수색깔을 강조하며 《보수대련합》으로 급진화했으니 비난여론이 쏟아져내리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후보는 이미 겁이 다 빠진 《국민대통합》을 주매장으로 삼아 민심을 끌어당겨보겠다고 여천히 《100% 대한민국사회》를 목아프게 제쳐대고있다. 얼마전에는 《국민통합, 정치체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3대중점지표》로 삼았다는 3개 분야 《10대약속》이라는 것을 다시금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왔자 《국민대통합》은 한갓 기만적인 언사에 불과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남조선사회에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중의 하나는 해묵은 지역감정, 지역대결이다. 지난 4월의 《국회의원총선거》때에

도 호남지역에서는 야당후보들이, 평남지역에서는 여당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어 동서지역이 확연히 구분되었는데 이 동서대결, 지역주의를 만들어낸 원조상이 바로 《유신》 독재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한 《유신》 독재자는 파쇼 《정권》의 《안보》를 보장하고 장기집권 실현을 위해 야당후보의 출신지인 호남지역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자기 출신지역인 대구, 경북지역을 내세우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묘하고 비열한 술책을 썼다. 그대부터 산생된 지역 분열이 있는 오랜 세월 남조선에서 분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악패로 되었다.

그 지역주의, 지역감정을 부추겨려 대로 《선거》에서 독특한 재미를 보아온것이 《새누리당》과 그의 전신들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리명박 《정권》이 지난 10월말에 마지막으로 벌려놓은 룡군장성정신금사에서 호남출신을 배제하고 평남출신 편중인사를 하여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밝혀진데 의하면 총 58명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급했으나 이 가운데 호남출신은 불과 8명에 그쳤다. 특히 《4성장군》까지 바라볼수 있는 룡사 42기와 41기 정장진급자 30명중에는 호남출신이 단 한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평남출신의 진급자는 무려 21명

에 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이 《MB(정부)가 《호남장군》씨를 말렸다니 경악할뿐》이라고 하면서 《박근혜후보가 호남에 가서 웨치는 《대통합》은 허구이자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사회통합을 이루자면 과거사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는 력대 독재 《정권》, 특히 《유신정권》이 만들어낸 커다란 상처가 아물지 않고 남아있다. 《유신》 독재의 서슬푸른 칼날 앞에서 수많은 남조선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리고 《사회불안세력》으로 매도되어 고문을 받고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썼으며 형량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투항학생간첩단사건》, 《적화공단사건》... 그대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남조선에서는 《유신》 독재자가 권력을 위해 희생물로 만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늘도 피해를 당하고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남조선인민들에게 저들의 과거죄악을 사죄하고 명예회복, 보상금지불 등 응당한 법적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더우기 문제시되는것은 보수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 날뛰고있는 《새누리당》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리명박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는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주력부패사건과 관련된 특검팀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결과를 존중한다느니 하면서도 일부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다느니 뉘니 하면서 저들이 피해를 본것처럼 늘어내고있다. 따지고보면 《대선》과 《총선》을 위한 후보 《경선》이든, 《공천》이든, 나중에는 전당대회라는데서까지 돈봉투가 왔다갔다하는 곳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래서 민심은 이미전에 《새누리당》에 《차별기당》, 《돈주리당》, 《부패정당》이라는 더러운 별명을 부여하였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그 권력으로 돈을 훔쳐내는것을 생리특성으로 하고있는 《새누리당》이 《변화》를 웨치고 《쇄신》을 부르짖으며 리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운운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갓 꾀변과 오그랑수에 불과하다.

《깨끗한 정권》의 말로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의 주력부패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지난 14일 막을 내리었다.

이런 집권자는 이번 《사회각계의 거센 항의와 압력에 못이겨 마지막까지 자기개입된 주력부패사건에 대한 특검수사를 허용하였다가 아들과 어머니를 당하고 나중에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색까지 제기되는 등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하였다. 《집권》 말기에 까지 부정부패행위를 끈질기게 쫓아내는 리명박 《정권》을 가리켜 남조선 각계에서는 《도둑적으로 변질한 《정권》》, 《식물대통령》이라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시작을 보면 끝을 알수 있다는 말이 있다. 현 집권자는 집권초기에 이른바 《깨끗한 정권》을 제창하여나섰다. 그러나 시작부터 부패 《정권》으로 등장한 리명박 《정권》이 그 끝도 부패로 끝날수 있다는것이 남조선 사회각계의 한결같은 평가였다. 그것이 지금 현실로 증명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번에 주력부패사건과 관련하여 리명박의 아들 리시형이 큰아버지인 리상은으로부터 받은 6억원이 지난 2007년 《대선》때 크게 문제시되었던 리명박의 BBK사건에서 핵심사황이었던 도곡동 땅을 판 돈일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BBK주가지작사건은 현 집권자가 1990년말에 재미교포 김경준과 함께 해외에 BBK투자자문회사라는것을 내오고 주가를 조작하여 부정축재를 한 의혹사황에서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리명박의 가장 큰 허물로 되었던 사건이다. 특히 리명박은 BBK주가지작사건수사에 나섰던 검찰과 특별검사팀을 구슬러 김경준에게 주가지작회의와 허위사실포피를 씌워 감옥에 갇어넣어 하였으며 2009년 3월에 있는 BBK투자자문회사의 투자금으로 리상은의 두 아들 동맹매각문제의 내막을 알고 있는 전 국제청 청장 한삼을 미국으로 빼돌려 그 《정권》의 감시하에 관리해 왔다.

이렇듯 자기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했지만 주력부패사건에 대한 특검으로 그 진상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한 번 호사는 10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에 물의를 일으켰던 BBK사건의 주범은 리명박이며 당시 남조선경찰이 현 집권자와 관련된 부정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깔아뭉갠다고 폭로했다.

참으로 민생에는 아랑곳없이 제 배불리기에만 이골이 난 리명박 《정권》만이 할수 있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새누리당》의 뿌리 《유신》 독재의 죄악상을 파헤친다 (7) 민족반역과 파쇼독재는 파멸의 길 파쇼폭압통치가 오래갈수 없고 민족반역자, 국약한 독재자가 인민의 심판을 받고 파멸되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33년전 심복졸개의 총란에 맞아죽은 남조선의 《유신》 독재자의 말로가 바로 그것을 실증해주었다. 물론 세팍으로 호르코 최는 지은데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악명높은 《유신》 독재자가 평생을 못살고 비참하게 종말을 고했것은 그가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기때문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유신》 독재자는 외세의존을 기본생존방식으로 삼고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기를 발칙히 한 보기도문 미국노였다. 그가 《혈통이 문제인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치가 문제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남조선에서 사회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수 없다. 그러나 보는바와 같이 《유신》의 후예인 지금의 《새누리당》은 저들의 과거 반인륜적악에 대해 털끝만 한 반성도 사죄도 없다.

얼마전에도 《새누리당》 후보는 《5.16쿠데타》와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 선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미화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독재 《정권》이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으로 판명되고 법원에서 판결한 인민혁명당사건에 대해서도 두가지 판결이 있으니 《력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회피운 수작질을 늘어놓은것이 《새누리당》 후보이다.

《유신》 독재자가 총칼로 강탈한 부일장학회를 강탈한것이 아니라 《한남》한것이라고 력사적 사실을 파렴치하게 외곡하여 독재를 합리화하고 피해자족들의 가슴에 두번이나 죽음을 대못을 박은 장본인도 바로 《새누리당》 후보이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 《새누리당》 후보는 근현대사 교과서출판기념식이라는 데 참석해 4.3항쟁을 《과파세력의 운운》으로 표현하고 군사독재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책을 가리켜 《우리가 자랑스러운 력사를 만든데 이 책이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해 자기의 파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는 대세로 되고있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새누리당》은 반통일과 대결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민족이 한결같이 찬양하는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정권》이 바뀌는 지금도 애써 외면하는 그들이련 북분화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인민들과 마음을 합칠수 있는가.

오히려 《통합》을 떠드는 이마당에서조차 《새누리당》은 《북방한계선》이니, 《북취록》이니 하며 광란적인 《총북》소동을 일으키고 남조선의 진보단체, 통일운동단체, 지어 야당과야권의 《대통령》 후보까지 모두 《총북》으로 몰아 현대판마녀사냥을 벌리고있다.

북이 《선거》를 앞두고 《남남분렬을 부추긴다.》고 떠들지만 실제로 북남대결로도 모자라 남남대결까지 몰아오는 대결의 광신자들은 바로 《새누리당》이고 그 후보이다.

《국민대통합》과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친미굴종, 파쇼와 대결은 절대로 량립할수 없다.

반민민적이고 반민족적인 《새누리당》은 《국민통합세력》이 아니라 남조선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파괴하는 악의 집단이다.

《새누리당》이 민심을 나꾸어체려고 속여 없는 《국민통합》 꾀변을 늘어놓고다니지만 각성된 남조선인민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결세력에 준엄한 심판을 안기교야 맞겠다.

김련옥

보수의 재집권은 북남관계의 파국

북지원과 경제협력을 진행하겠다는것 등은 리명박 《정권》의 《5.24조치》, 《체제대결》과 《흡수통일》, 《선택폐기론》의 답습으로서 이런 립장으로는 그 언젠가도 북과 남의 관계가 개선될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지금이상의 관계악화만을 초래하게 된다. 공화국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북인련법》 제정을 떠드는가 하면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것, 핵문제와 관련된 하여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나가겠다는니 하는 것들을 조항조항으로 쪼아박았다. 이것은 사실상 《새누리당》에게 있어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는 효모만큼도 없으며 오히려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할 생각만 폭뒤까지 착 았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따져놓고보면 《천안》호, 연평도사건이 되풀이되는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것이 나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비핵화전에 따라 대

를 설치하겠다는것 역시 북남관계를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관계로 보는것으로서 애당초 통일을 바라는 립장이 아니라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떠드는것도 철저히 대결의식의 발현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언론, 정치분석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을 두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모순투성이공약》, 북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일관한 《대결공약》, 력대 보수 《정권》들의 《안보우선론을 답습한 공약》이라고 평하고있다. 보여주는것처럼 《새누리당》이나 그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의 보수대결적근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력사적으로 볼 때 남조선에서 보수는 북남관계에서 언제나 대결을 추구해왔다.

을 떠들며 북과 대결을 고취한것이 리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6.15북남공동선언, 10.4선언의 전면파괴이라는 동족대결의 막이 오른것은 그 대표적실례들이다. 뿌리도, 지지기반도 보수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의 체질적본성 역시 보수이고 대결이다. 《새누리당》 후보로 말하면 가장 보수적인 군사 《정권》과 보수정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집단속에서 성장하고 청와대에서 오래동안 생

활하였으며 가정적으로 보아도 보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 봐도 보수, 옆으로 봐도 보수인 그가 파란된 북남관계를 유연하게 풀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시대를 연다는것부터가 말장난이다. 《새누리당》이 《국민대통합》 놀음을 벌려놓고 《정치체신》을 떠든것도, 현 《정권》의 대북강경조치를 바꾸고 악화된 북남관계의 돌파구를 열것처럼 잡다하게 웨쳐대고도 결국은 그의 보수적립장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민심의 요구를 따르는 인상을 줌으로써 어떻게 하나 재집권하고보자는 립장에서였다는것이 이제 와서 더욱 명백해진 사실이다. 그러니 만일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의 재집권이 기정사실화된다면 북남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두말할것 없이 그것은 악화의 계선을 뛰어넘어 완전파탄, 파국을 몰아올것이다. 성중삼

리명박역적패당의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재증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담화 발표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이 들이치고 민족의 리익이 엄중히 침해당하였을뿐 아니라 북남관계가 사상최악의 상태에 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담화는 리명박역적의 집권기간 남조선인민들에게

통치로 남조선은 5년동안에 인권의 불보지, 폐허지대로, 민중이 초보적생존의 권리마저 잃은 암흑천지로 완전히 전락되었다고 담화는 개탄하였다. 담화는 남조선에서의 파쇼독재의 밑바탕에는 《보안법》의 녹슨 칼이 있으며 이 하에 은 남녘땅이 눈은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인간생지옥으로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지 숨막히게 드러우고있다고 하면서 담화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 리명박역적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악랄하고 쓸개빠진 반역무리인가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담화는 만약 《새누리당》이 또다시 권력을 쥐게 되면 남조선에서는 《유신》 독재를 통가하는 퍼미린 파쇼 폭압시대가 등장할것은 변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은 거레는 리명박역적패당이 집권기간 저지른 몹서

리치는 죄악을 똑똑히 기억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재증조선인총련합회 일꾼들과 전체 재증조선인들은 파쇼독재 《정권》을 라도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리행하는 길만이 민족이 번영하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애국배족의 무리인 리명박역적과 《새누리당》 친미보수세력을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파강히 벌려 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새누리당》의 뿌리 《유신》 독재의 죄악상을 파헤친다 (7)

민족반역과 파쇼독재는 파멸의 길

파쇼폭압통치가 오래갈수 없고 민족반역자, 국약한 독재자가 인민의 심판을 받고 파멸되는것은 력사의 법칙이다. 33년전 심복졸개의 총란에 맞아죽은 남조선의 《유신》 독재자의 말로가 바로 그것을 실증해주었다. 물론 세팍으로 호르코 최는 지은데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악명높은 《유신》 독재자가 평생을 못살고 비참하게 종말을 고했것은 그가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기때문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유신》 독재자는 외세의존을 기본생존방식으로 삼고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기를 발칙히 한 보기도문 미국노였다. 그가 《혈통이 문제인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치가 문제

다

다

다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본사기자 주광일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대회가 21일과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기발이 대회장에 세워져 있었다. 대회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적십자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대표단과 적십자국제위원회 대표단 성원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

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양형섭부위원장장과 짐 찰즈 도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대표단 단장, 장자크 뿌발라즈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 단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대회에서는 백용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의 력사와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2008년 대회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예산집행정형이 총화되었으며 규약이 일부 수정보충되었다. 또한 2016년까지의 발전 전략과 부문별 사업방향, 예산이 토의되었으며 새 지도기관 성원들이 선거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적십자대회가 진행될것과 관련하여 22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의 어머니들처럼 나도...

이번에 나는 조국의 첫 어머니날을 맞으며 제4차 전국 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꼈었다. 지금껏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일본땅에서 살면서 네자식을 낳아키워 총련학교에 보냈으니 그만하면 어머니구실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이 나의 자부심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국의 어머니들의 고결한 품도와 아름다운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지금껏 한 일이 너무도 적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을 위해 피흘린 영예군인에게 한생을 고스란히 바친 아름다운 인생관을 지닌 여성들, 자식들을 많이 낳아 나라의 기둥들로서 키운 어머니들, 조국이 맡겨준 초소를 지켜 오래동안 묵묵히 일해온 녀성혁신자들, 자식들을 거느린 녀성의 몸으로 후대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교육자어머니, 박사어머니들... 하나같이 순박하고 평범한 녀성들이였으나 불타는 애국충정과 참된 모성애로 부강조국을 떠받쳐온 훌륭한 어머니, 참다운 애국자들이 바로 조국의 어머니들이였다. 더욱 감동적인것은 어머니들의 값높은 생애를 온 나라의 축복속에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해배같은 은정이였다. 세상에 어머니들이 많고

인류력사는 어머니들의 력사라고도 일러왔지만 어머니들의 수고를 헤아려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까지 성대히 열어 온 나라의 대경사로 축복하도록 해주신 자애로운 어머니는 일찌기 알지 못하고있다. 진정한 사랑, 그 은정을 떠나 조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의 축복받은 삶을 어찌 생각할수 있겠는가. 원수님의 해배같은 그 사랑은 우리 해외동포녀성들을 애국의 한길로 더욱 억세게 떠밀어주고있다. 이번에 나의 애국의 키는 또 한번 성장했다. 나는 앞으로 주체조국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고 총련의 애국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대표단 단원 박사령**



기쁨과 랑만이 넘쳐나는 체육문화후생기지들

- 새로 일떠선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을 찾아서 -

승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물결모양의 뿔트라스를 이고 특색있게 건설된 건물이다. 얼마전에 새로 일떠선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이었다. 그중에는 로라스케트장이 번듯하게 세워져 강변의 아름다움을 이채롭게 해주었다.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은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이며 체력단련을 위한 대중체육기지이다. 대중목욕탕과 개별목욕탕, 리발실과 미용실, 청량음료실 등으로 이루어져있는 류경원에는 근로자들이 정신육체적피로를 풀고 건강을 되찾게 하는 필요한 설비들이

현대적으로 그르하게 갖추어져있다. 1980년대에는 창광원이 일떠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새 세기에는 류경원이 세워져 인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보장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류경원이 문을 열자 인민들이 즐겨찾아오고있으며 류경원덕을 단단히 보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돌아본 김 총리제중동호는 류경원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현대적으로 꾸려진것에 놀라왔지만 이런 고급한 문화후생시설을 평범한 근로자들이 마음껏 리용

하고있는것이 더 놀랍고 가슴뜨거웠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사람을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하는 류경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세상에 이런 문화후생 시설들이 적지 않아도 류경원과 같이 령도자의 커다란 관심과 사랑속에 일떠선 건축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차례 류경원을 찾으시였다. 지난 7월 완공단계에 이르는 류경원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대중목욕탕의 탁의함을 열어서보고 화끈하게 달아오

른 한중간에도 들어가보시며 인민들이 리용할 시설에 자그마한 흠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며 류경원을 인민에게 최상최대의 편리를 보장하는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워주시는 어머니의 그 은정은 인민야외빙상장과 로라스케트장에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정속에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대중체육기지건설이 시작된 그날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사진행정형을 알아보시고 계시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김

본사기자 박금일

물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스케트와 로라스케트를 타며 좋아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기쁘시어 그들과 함께 온정을 기원하시기도 찍어주시는 원수님이시였다. 참으로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은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는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오늘 인민들의 절세위인들의 마사로운 손길아래 솟아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 대중체육기지에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고한다.

기분좋은 음악과 청신한 산소까지

* 치료체육실에서 *

류경원을 찾는 손님들이 즐겨찾는 곳은 목욕탕과 리발실, 미용실들만이 아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의 건강과 운동을 위한 치료체육실이 마련되어 있다. 류경원을 찾는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음악진동기, 음향안마의자, 달리운동기, 종합운동기, 노젓기운동기 등을 비롯한 수십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는데다가 여러대의 자외선램프도 있어 운동을 하거나 치료체육을 하기에는 그저그만이다. 이곳의 치료체육실비들은 하나같이 훌륭하것이다. 음향안마의자만 놓고보더

라도 의자에 척 앉으면 기분좋은 음악이 울려나오는 속에서 청신한 산소가 흘러나오고 마치 깊은 수심속에 있는듯 한 느낌을 주는 속에서 자동안마를 받게 되어 있다. 이곳 치료체육실의 김련희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준공을 앞둔 류경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도 치료체육실에도 들리시여 여러가지 운동기재들을 보아주시며 자외선램프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고 한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조금도 만족을 모르는 한없는 그 사랑에 떠받들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꾸려진 이곳 치료체육

실에서 봉사를 시작하지 열매되지 않지만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류경원 치료체육실의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옥류1동에 사는 김현국(62살)은 얼마전까지 통일거리운동센터에 찾아가곤 하였는데 이제는 집가까이에 있는 류경원에서 마음껏 운동과 치료체육을 하게 되었으니 정말 편리하다며 좋아하였다. 류경원을 찾는 사람들마다 체질과 건강상태에 알맞은 운동기재들에서 마음껏 땀을 흘리고 시원하게 목욕까지 하고나니 몸이 거뜨하고 막 날아갈것만 같다고 한결 같이 말하곤 한다. **본사기자 홍범식**



본사기자

인기를 끄는 한증방들

류경원에서 인기를 끄는 곳은 특색있게 꾸려진 한증방들이다. 한증설비를 보고 목욕탕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욕하는데서 한증은 없어서는 안될 피로회복 및 건강을 되찾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수 있다. 류경원에 꾸려진 한증방들은 그런 의미에서 손색이 없이 훌륭하게 꾸려져 인기를 끌고있다. 남, 녀대중목욕탕들에 걸달린 한증방에 들어서면 진동한중기, 전신안마치르기,

안마의자, 음향의자, 액정TV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그르하게 갖추어져있다. 땀을 흘리고나서 시원한 청량음료를 마실수 있는 매대도 있다. 한증방별로 자기의 특색들이 있다. 바닥 벽체도 다 소나무로 되어있는 소나무한증방은 심장과 폐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지천식과 류마치스관

절염, 탈모증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고온에서 정제된 소금에서 발산되는 먼적외선에 의한 치료효과가 큰 소금한증방은 순환기계통질병과 신경계통질병치리에 좋으며 피부를 윤택하게 해주고 피로회복에도 특효가 있다. 소나무한증방과 소금한증방의 온도는 다 보통 50℃이다. 일명 돌고름이라고 하는

중유석으로 장식된 한증방은 소나무한증방과 소금한증방에 비해 온도가 비교적 낮고 시원한감을 주는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장, 간기능치리에 좋다. 일반적으로 한증방은 80~110℃의 뜨거운 열로 온몸을 덥혀 땀을 내는 장소로서 오래전부터 목욕탕안에 설치해 놓고 리용해왔다.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와 소금 등을 리

용한 한증으로 몸에 쌓였던 로메물을 없애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온도가 서로 다른 한증방들이 출현하였다. 한증방은 온도가 그리 높지 않고 목욕후 간편한 옷을 입고 휴식을 하면서 피로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는 장소이다. 류경원의 한증방들은 로동과 생활과정에 쌓인 온갖 정신육체적피로를 말끔히 풀고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게 하는데서 더할나위없는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요즘 평양의 여러 곳에는 크고작은 로라스케트장들이 꾸려져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누구나 즐겨 리용하고있다. 그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특색있게 꾸려진것은 인민야외빙상장에 있는 로라스케트장이다.

누구나 즐겨찾는 로라스케트장

무지개모양을 형성한 점문에 들어서면 여러가지 색깔로 산뜻하게 단장된 공지며 드넓게 펼쳐진 로라스케트장이 눈앞에 안겨든다. 면적이 2 250㎡인 기본주

로와 로라호케이장, 기교장은 볼수록 멋있다. 로라스케트장에서 이채로운것은 기교장이다. 이곳에서는 보급원들이 스케트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안전 조건에서 기술을 충분히 배울수 있게 스케트라는 법과 기교동작들을 배워 주기도 한다. 료환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각이한 형식의 구

조물들이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있는 기교장에서 사람들은 재치있는 기교동작을 펼쳐며 용감성을 키우고있다. 로라스케트장에는 사람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주는 여러 봉사시설들도 그르히 꾸려져있다. 남, 녀탈의실들이 있고 여러가지 종류의 스케트를 내주는 곳도 있다. 또한 휴식장소들과 청량음료점들이 갖추어져 운동과 휴식을 적절히 배합하는데 아주 편리하다. 로라스케트장에는 주로우에서 흠뻑 땀을 흘린 다음 시원히 몸을 식힐수 있는 사와실도 있다. 이곳 로라스케트장에서 사람들은 기쁨속에, 웃음속에 체력을 단련해가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공화국의 혜택을 다 시금 뜨거이 절감하고있다. **본사기자**

사랑의 은반우에 인민의 기쁨 넘쳐나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료라인민유원지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화후생터가 훌륭히 마련되었다.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찾아주시신 인민야외빙상장이다. 이름만 들어도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후생터임을 실감할수 있게 하는 인민야외빙상장은 준공식을 하기 바쁘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있다. 빙상장에 들어서면 드넓은 빙상홀이 한눈에 안겨온다. 라인형의 얼음판과 스케트트라는 곳, 대기 및 휴게실, 의료실, 방수실, 감시실 등 봉사에 필요한 모든것이 갖추어져있는 빙상홀은 볼수록 훌륭하다. 은반우에서 스케트를 타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속에는 20~30대 청년들도 있고 10대도 안되는 나이 어린 소년, 소녀들도 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스케트타기를 배워주는 젊은 부부들이며 나이지숙한 사람들도 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과

랑만이 넘쳐흐른다. 이곳 빙상장은 야외에 건설되었지만 겨울은 물론 무더운 삼복철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한다. 급속속도 및 유지가 첨단수준인 현대적인 설비들이 한여름에도 차디찬 얼음을 유지해주기 때문인것이다. 여름철에는 샤워를 입고 스케트를 타는 풍경은 얼마나 희한하겠는가. 인민야외빙상장에는 얼음판 정비차라고 부르는 얼음깎는 기계도 있는데 스케트타기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얼음판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인민야외빙상장 얼음판의 매끈도와 굳기가 높은 수준이어서 이곳에서 국제경기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훌륭한 빙상장이 다름아닌 평범한 근로자들의 체력단련과 문화후생을 위하여 건설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을 후덕

게 하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이곳을 찾아주시었을 때 한 일꾼이 빙상체육선수들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빙상장에 와보고 얼음판의 질이 정말 좋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싶어한다고 말씀하였다. 그러자 원수님께서는 인민야외빙상장은 철저히 일반근로자들이 리용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한다. 스케트를 내주는 곳에 가득 차있는 속도빙상스케트며 휘거스케트, 호케이스케트를 비롯한 갖가지 스케트들과 최신설비들, 얼음판

밖에서 스케트를 신고 다닐수 있게 수직칼판 대신에 교체된 고무칼판을 비롯하여 빙상장의 운동기재며 설비들이 결코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 제일 훌륭하것을 인민들에게 아낌없이 안겨주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으로 일떠선 인민야외빙상장에서 마음껏 스케트를 타며 사람들은 보다 문명하고 행복해질 자기들의 래일을 그려보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본사기자

